

#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수준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김지희<sup>1</sup>, 홍민희<sup>2</sup>, 정미애

<sup>1</sup>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sup>2</sup>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level and quality of life Study

Jee-Hee Kim<sup>1</sup>, Min-Hee Hong<sup>2</sup>, Mi-Ae Jeong

<sup>1</sup>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isty

<sup>2</sup>Dept. of Dental Hygiene, Kangwon National Univeisty

**요약** 본 연구는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 분석하고,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기간은 2010년 5월 2일에서 6월 22일까지 영남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주관적 구강상태는 ‘매우 나쁘다’ 는 응답률이 40.4%로 가장 높았고 결손치는 41.3%가 있었으며 보철치는 61.5%가 없었다. 치아우식증은 57.5%가 있었고 치주질환자는 38.6%가 없었으며, 부모님이 틀니를 장착하였다는 자가 41.3%이었다. 구강보건지식수준은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편이고, 보철치가 있으며, 악관절 이상이 없는 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구강보건 실천수준은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편에서, 보철치가 있는 자에서 각각 높았으며, 식생활 행태수준은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편에서, 치아우식증이 없는 자에서, 악관절 이상이 없는 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Abstract** In this study, perceived oral health survey of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analysis, and oral disease prevention and oral health improvement program for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 needed to develop community health promotion and aims 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Placed. The study period, 2010 January 2 to February 22 for adults and Yeungnam area surveyed as follows. Subjective oral condition is very bad as the 40.4% response rate was the highest. There were missing teeth in 41.3%, 61.5% had prosthetic teeth. 57.5% had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and 38.6% who were not parents to get dentures fitted by petitioner was 41.3%. The level of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is a good side, the prosthetic teeth and TMJ or no characters were higher than other groups.

Oral Health Practice is a good side of the level of oral health status, and prosthetic teeth were the characters each. Eating Patterns is a good side of the level of oral health, dental caries, those who can not or do not have TMJ and the characters were higher than other groups.

• **Key Words** : perceived oral health, quality of life, level of oral health

## 1. 서론

전통적 건강수준의 개념은 질병의 중증도와 생존율, 건강상태의 객관적 평가에 중점을 두었으나 근래에는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의 기능과 환자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식생활 양식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구강질환

\*교신저자 : 정미애(teeth2080@kangwon.ac.kr)

접수일 2010년 12월 23일 수정일 2010년 12월 27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28일

의 유병율은 모든 연령에 걸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1]. 구강질환의 관리는 예방에 관심을 두고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 및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구강보건 관리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신의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기에서는 구강보건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경제활동으로 바뀐 성인기에는 구강보건교육을 소홀히 하여 치아가 상실된 다음, 노인기의 구강보건교육은 보철물관리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치아상실 전 구강관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근래에는 건강의 개념이 안녕(well-being)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건강상태 자가 평가방법이 종래의 객관적 평가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 측면에서 다른 방법보다 장점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2]. 임상적인 평가 대신에 지각된 건강상태를 이용한 연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건강증진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자가 평가가 임상적인 평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3][4].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판단하는 주관적 지표를 중시해야 한다[5]는 주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문혁수와 김종배[6]는 설문과 구강검사를 통해 임상적 평가에 의한 치과보건의료수요와 자가 평가한 결과에 의한 의료 수요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임상 증상은 차이가 없었으나 자가 평가에 의한 의료 수요가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에 대한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를 알아봄으로써 지역사회 성인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과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2010년 5월 2일에서 6월 22일까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혼련된 치위생과 학생 2명을 1개조로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설문문항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20세 이상 성인, 총 572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Ver.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 수준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는 t-test와 ANOVA 분석을 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생활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는 여자가 58%로 남자 4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20~29세가 35.5%로 가장 높았으며, 최종학력은 고졸이 59.6%로 높았다. 결혼을 한 사람이 62.4%이었으며, 자녀는 없다가 39.3%, 2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38.6%이었다. 월평균수입은 150만원이하 응답자가 43.5%이고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상태는 ‘중’이라는 응답자가 62.6%로 가장 높았으며, 판매,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38.3%이었다.

건강생활에서 한 달에 2~3번 음주한다고 응답한 자가 49.34%이었으며, 전혀 안 마신다가 25.5%, 주1회 이상 마신다가 25.2%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흡연은 하지 않는 자가 73.1%로 높았으며,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35.5% 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

	구 분	대상자(명)	백분율(%)
성별	남	240	42.0
	여	332	58.0
연령(세)	20-29	203	35.5
일반적특성	30-39	118	20.6
	40-49	125	21.9
	50≤	126	22.0
성 학력	중졸이하	68	11.9
	고졸	341	59.6
	전문대졸이상	163	28.5
월 평균 수	≤ 150	249	43.5

건강생활	입 (만원)	151-250	170	29.7
		251≤	153	26.7
	직업	판매,생산직	219	38.3
		학생,군인,주부	201	35.1
		교육자,공무원	27	4.7
		기술전문직	95	16.6
		무직	30	5.2
	음주습관	전혀안함	146	25.5
		1달에1-3회	282	49.3
		주1회이상	144	25.2
	흡연량	전혀안함	418	73.1
		하루에한갑정도	117	20.5
		하루에1갑초과	37	6.5
운동횟수		안한다	203	35.5
		1달에1-2회	139	24.3
	1주에1-3회	165	28.8	
	매일	65	11.4	

### 3.2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자가 인식 구강건강상태는 나쁜 편이 40.4%로 가장 높았고 보통 31.6%, 매우 나쁨 13.5%, 건강한 편 11.5%, 매우 건강이 3.0%의 순이었다(표 2).

특성별로 보면 남자에서 나쁜 편이 38.3%, 여자에서 41.9%( $p<0.05$ )이었으며,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남자가 45%, 여자가 34%( $p<0.01$ )이었다. 악관절 이상에서 여자가 22.9%로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

연령은 50세 이상에서 보철치 보유율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결손치도 50세 이상이 54.0%로 가장 높았다( $p<0.001$ ). 치아우식증은 20-29세에서 68.5%로 가장 높았다( $p<0.01$ ). 부모님이 틀니를 장착하고 있었던 자가 40-49세에서 64.0%로 가장 높았다( $p<0.001$ ).

학력에서는 중졸이하가 보철치 52.9%와 결손치가 61.6%로 보유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자가 48.5%로 결손치가 높았고( $p<0.001$ ) 치아우식증은 미혼이 65.6%로 높았으며( $p<0.01$ ), 기혼자가 치주질환이 45.4%로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 미혼자의 부모님 틀니장착이 85.1%로 높았다( $p<0.001$ ).

자녀수에서는 3명이상에서 치주질환이 53.8%로 높았고( $p<0.001$ ) 자녀가 1명인 자의 부모님 틀니장착이 63.0%로 가장 높았다( $p<0.001$ ). 월평균수입은 151-250

만원이 결손치가 높았으며( $p<0.001$ ), 보철치는 151-250만원, 치아우식증은 150만원이하, 치주질환은 251만원이상 인자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251만원이상 인자의 부모님 틀니 장착이 53.6%로 가장 높았다( $p<0.001$ ).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이 결손치가 53.3%로 높았으며( $p<0.001$ ), 치아우식증은 학생, 군인, 주부가 66.7%, 판매, 생산직 종사자가 치주질환이 47.9%이었으며( $p<0.01$ ), 부모님이 틀니를 장착하고 있는 자가 53.4%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

흡연량에서도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p<0.001$ ), 치주질환은 하루에 한 갑정도가 50.4%로 높았다( $p<0.01$ ).

### 3.3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 행태 수준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라 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표 3)를 보면 성별에서 여자가 구강보건지식이 3.40점으로 남자보다 높았고( $p<0.05$ ), 구강보건실천도 여자(2.54)가 높았으며( $p<0.01$ ), 식생활행태는 남자(3.47)가 높았다( $p<0.01$ ). 연령에서 각 요인을 살펴보면 식생활행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1$ ), 40~49세(3.59)가 가장 높았고 20~29세(3.10)는 낮았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상(2.55)이 구강보건실천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결혼유무에서는 기혼자(3.47)가 식생활행태가 좋았다( $p<0.01$ ). 자녀수에서는 3명이상(3.55)이 식생활행태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p<0.01$ ). 월수입에서는 식생활행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1$ ), 251만원이상(3.52)인 자가 가장 높았다.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상' 인 자(2.67)가 구강보건실천 점수가 좋았으며( $p<0.05$ ), 식생활행태(3.72)에서도 유의하게 높았다( $p<0.01$ ). 직업에서는 교육자와 공무원(2.71)이 구강보건실천에서 가장 높았으며( $p<0.05$ ), 식생활행태는 기술전문직(3.50)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음주습관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흡연량은 하루 한갑 이상(3.51) 피우는 자가 구강보건지식이 좋았다( $p<0.05$ ). 평소운동은 매일 하는 자가 구강보건실천(2.62), 식생활행태(3.58)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

[표 2]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 분		대상자 572(명)	자가 인식 구강건강상태					X <sup>2</sup>	
			매우나쁨 13.5	나쁜편 40.4	보통 31.6	건강한편 11.5	매우건강 3.0		
일 반 적 특 성	성별	남	240	14.2	38.3	29.2	12.9	5.4	10.380 <sup>*</sup> df=4
		여	332	13.0	41.9	33.4	10.5	1.2	
	연령 (세)	20-29	203	10.8	42.9	33.0	9.4	3.9	9.735 df=12
		30-39	118	11.0	39.0	34.7	13.6	1.7	
		40-49	125	14.4	37.6	32.0	12.8	3.2	
		50≤	126	19.0	40.5	26.2	11.9	2.4	
	학력	중졸이하	68	20.6	50.0	19.1	4.4	5.9	19.081 <sup>*</sup> df=8
		고졸	341	14.4	39.6	30.8	12.6	2.6	
		전문대졸이상	163	8.6	38.0	38.7	12.3	2.5	
	결혼상태	유	357	14.8	40.1	30.8	12.0	2.2	3.504 df=4
		무	215	11.2	40.9	33.0	10.7	4.2	
	자녀수 (명)	없다	225	10.2	41.3	34.2	10.2	4.0	12.064 df=12
		1	46	19.6	32.6	32.6	13.0	2.2	
		2	221	13.1	42.1	31.2	10.9	2.7	
		3≤	80	20.0	37.5	25.0	16.3	1.3	
	월평균수입 (만원)	≤ 150	249	13.3	42.2	31.7	9.2	3.6	5.964 df=8
		151-250	170	14.7	34.7	34.1	13.5	2.9	
		251≤	153	12.4	43.8	28.8	13.1	2.0	
	경제상태 (주관적)	상	16	18.8	25.0	25.0	18.8	12.5	14.628 df=8
		중	358	11.2	41.1	34.4	11.5	2.0	
하		198	17.2	40.4	27.3	11.1	4.0		
직업	판매, 생산직	219	14.2	42.0	30.1	11.4	2.3	12.578 df=16	
	학생, 군인, 주부	201	12.4	42.8	30.8	11.4	2.5		
	교육자, 공무원	27	11.1	33.3	37.0	18.5	0.0		
	기술전문직	95	12.6	32.6	38.9	10.5	5.3		
	무직	30	20.0	43.3	20.0	10.0	6.7		
음주습관	전혀안함	146	13.0	41.1	34.2	11.0	0.7	10.614 df=8	
	1달에1-3회	282	13.8	41.1	32.6	9.2	3.2		
	주회이상	144	13.2	38.2	27.1	16.7	4.9		
흡연량	전혀안함	418	12.0	41.4	33.5	11.5	1.7	28.046 <sup>***</sup> df=8	
	하루에한갑정도	117	19.7	39.3	28.2	8.5	4.3		
	하루에1갑초과	37	10.8	32.4	21.6	21.6	13.5		
운동횟수	안한다	203	15.8	44.8	29.6	6.9	3.0	16.163 df=12	
	1달에1-2회	139	12.9	41.7	31.7	10.8	2.9		
	1주에1-3회	165	10.3	38.2	34.5	14.5	2.4		
	매일	65	15.4	29.2	30.8	20.0	4.6		

\* : p<0.05, \*\*\* : p<0.001

[표 2] 계속

		단위(%)										
구 분	대상자 572(명)	보철치			결손치			치아우식증				
		유 38.5	무 61.5	$\chi^2$	유 41.3	무 58.7	$\chi^2$	유 57.5	무 42.5	$\chi^2$		
성별	남	240	36.3	63.8	0.854	44.6	55.4	1.886	56.3	43.8	0.272	
	여	332	40.1	59.9	df=1	38.9	61.1	df=1	58.4	41.6	df=1	
연령 (세)	20-29	203	29.6	70.4		28.6	71.4		68.5	31.5		
	30-39	118	30.5	69.5	25.719***	40.7	59.3	25.485***	51.7	48.3	15.560*	
	40-49	125	44.0	56.0	df=3	49.6	50.4	df=3	50.4	49.6	df=3	
	50≤	126	54.8	45.2		54.0	46.0		52.4	47.6		
학력	중졸이하	68	52.9	47.1		61.8	38.2		52.9	47.1		
	고졸	341	39.0	61.0	9.609***	41.1	58.9	16.249***	58.4	41.6	0.683	
	전문대졸이상	163	31.3	68.7	df=2	33.1	66.9	df=2	57.7	42.3	df=2	
결혼상태	유	357	44.8	55.2	3.504	48.5	51.5	20.319***	52.7	47.3	9.167*	
	무	215	27.9	72.1	df=4	29.3	70.7	df=1	65.6	34.4	df=1	
일 반 적 특 성	자녀수 (명)	없다	225	29.3	70.7		31.6	68.4		65.8	34.2	
	1	46	43.5	56.5	18.133***	43.5	56.5	14.921**	50.0	50.0	11.083	
	2	221	40.7	59.3	df=3	47.5	52.5	df=3	53.8	46.2	df=3	
	3≤	80	55.0	45.0		50.0	50.0		48.8	51.3		
월평균 수입 (만원)	≤ 150	249	32.1	67.9		31.7	68.3		65.1	34.9		
	151-250	170	48.8	51.2	12.025**	53.5	46.5	20.119***	46.5	53.5	14.288*	
	251≤	153	37.3	62.7	df=2	43.1	56.9	df=2	57.5	42.5	df=2	
경제상태 (주관적)	상	16	31.3	68.8		50.0	50.0		68.8	31.3		
	중	358	36.0	64.0	3.312	36.9	63.1	7.614*	56.7	43.3	0.949	
	하	198	43.4	56.6	df=2	48.5	51.5	df=2	58.1	41.9	df=2	
직업	판매,생산직	219	42.9	57.1		48.9	51.1		55.3	44.7		
	학생,군인,주부	201	32.8	67.2		27.9	72.1		66.7	33.3		
	교육자,공무원	27	29.6	70.4	6.345	37.0	63.0	24.755***	44.4	55.6	13.930*	
	기술전문직	95	43.2	56.8	df=4	49.5	50.5	df=4	52.6	47.4	df=4	
	무직	30	36.7	63.3		53.3	46.7		40.0	60.0		
음주습관	전혀안함	146	40.4	59.6		47.9	52.1		5.07	49.3		
	1달에1-3회	282	39.7	60.3	1.618	40.4	59.6	4.349	57.1	42.9	6.359*	
	주1회이상	144	34.0	66.0	df=2	36.1	63.9	df=2	65.3	34.7	df=2	
건 강 생 활	흡연량	전혀안함	418	39.5	60.5		39.7	60.3		56.2	43.8	
		하루에한갑정도	117	34.2	65.8	1.151	42.7	57.3	3.017	61.5	38.5	1.119
		하루에1갑초과	37	40.5	59.5	df=2	54.1	45.9	df=2	59.5	40.5	df=2
	운동횟수	인한다	203	42.9	57.1		47.3	52.7		62.1	37.9	
1달에1-2회	139	33.1	66.9	4.554	38.8	61.2	5.766	57.6	42.4	3.392		
1주에1-3회	165	40.0	60.0	df=3	39.4	60.6	df=3	52.7	47.3	df=3		
매일	65	32.3	67.7		32.3	67.7		55.4	44.6			

\* : p<0.05, \*\* : p<0.01, \*\*\* : p<0.001

[표 2] 계속

구 분		대상자(명) 572	치주질환			악관절 이상			부모님틀니장착					
			유	무	$\chi^2$	유	무	$\chi^2$	유	무	$\chi^2$			
			38.6	61.4		20.1	79.9		41.3	58.7				
성별	남	240	45.0	55.0	7.063*	16.3	83.8	3.825	44.2	55.8	1.443			
	여	332	34.0	66.0		df=1	22.9		77.1	df=1		39.2	60.8	df=1
연령 (세)	20-29	203	27.1	72.9	28.419***	23.6	76.4	5.238	13.8	86.2	103.626***			
	30-39	118	37.3	62.7		df=3	13.6		86.4	df=3		64.0	36.0	df=3
	40-49	125	40.8	59.2			19.0		81.1			49.2	50.8	
	50≤	126	56.3	43.7										
학력	중졸이하	68	52.9	47.1	7.554†	25.0	75.0	1.561	50.0	50.0	2.499			
	고졸	341	38.1	61.9		df=2	20.2		79.8	df=2		40.5	59.5	df=2
	전문대졸이상	163	33.7	66.3			17.8		82.2			39.3	60.7	
결혼상태	유	357	45.4	54.6	18.208***	17.6	82.4	3.572	57.1	42.9	98.876***			
	무	215	27.4	72.6		df=1	24.2		75.8	df=1		14.9	85.1	df=1
일 반 적 특 성	재녀수 (명)	없다	225	25.8	74.2	27.930***	24.9	75.1	5.555	16.0	84.0	99.112***		
	1	46	43.5	56.5	df=3		16.3	83.7		df=3	58.4		41.6	df=3
	2	221	45.2	54.8			17.5	82.5			52.5		47.5	
	3≤	80	53.8	46.3										
월평균 수입 (만원)	≤ 150	249	35.3	64.7	9.562*	22.5	77.5	2.766	26.9	73.1	37.666***			
	151-250	170	34.1	65.9		df=2	20.6		79.4	df=2		51.2	48.8	df=2
	251≤	153	49.0	51.0			15.7		84.3			53.6	46.4	
경제상태 (주관적)	상	16	37.5	62.5	7.891†	25.0	75.0	1.247	43.8	56.3	0.120			
	중	358	34.4	65.6		df=2	21.2		78.8	df=2		41.6	58.4	df=2
	하	198	46.5	53.5			17.7		82.3			40.4	59.6	
직업	판매,생산직	219	47.9	52.1	15.112**	15.1	84.9	5.749	53.4	46.6	27.731***			
	학생,군인,주부	201	30.3	69.7			23.9		76.1			30.3	69.7	
	교육자,공무원	27	29.6	70.4		df=4	22.2		77.8	df=4		29.6	70.4	df=4
	기술전문직	95	38.9	61.1			22.1		77.9			44.2	55.8	
	무직	30	33.3	66.7			23.3		76.7			26.7	73.3	
음주습관	전혀안함	146	37.7	62.3	0.746	18.5	81.5	0.353	48.6	51.4	4.460			
	1달에1-3회	282	37.6	62.4		df=2	20.9		79.1	df=2		38.3	61.7	df=2
	주1회이상	144	41.7	58.3			20.1		79.9			39.6	60.4	
흡연량	전혀안함	418	34.7	65.3	10.442**	19.6	80.4	1.180	39.7	60.3	1.736			
	하루에한갑정도	117	50.4	49.6		df=2	19.7		80.3	df=2		44.4	55.6	df=2
	하루에1갑초과	37	45.9	54.1			27.0		73.0			48.6	51.4	
운동횟수	안한다	203	43.3	56.7	6.360	23.2	76.8	2.001	35.0	65.0	5.361			
	1달에1-2회	139	32.4	67.6		df=3	18.7		81.3	df=3		43.9	56.1	df=3
	1주에1-3회	165	41.2	58.8			17.6		82.4			46.1	53.9	
	매일	65	30.8	62.9			20.0		80.0			43.1	56.9	

\* : p<0.05, \*\* : p<0.01

### 3.4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 행태 수준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라 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표 3)를 보면 성별에서 여자가 구강보건지식이 3.40 점으로 남자보다 높았고( $p<0.05$ ), 구강보건실천도 여자(2.54)가 높았으며( $p<0.01$ ), 식생활행태는 남자(3.47)가 높았다( $p<0.01$ ). 연령에서 각 요인을 살펴보면 식생활행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1$ ), 40~49세(3.59)

가 가장 높았고 20~29세(3.10)는 낮았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상(2.55)이 구강보건실천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결혼유무에서는 기혼자(3.47)가 식생활행태가 좋았다( $p<0.01$ ). 자녀수에서는 3명이상(3.55)이 식생활행태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p<0.01$ ). 월수입에서는 식생활행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1$ ), 251만원이상(3.52)인 자가 가장 높았다.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상' 인 자(2.67)가 구강보건실

[표 3]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 수준

구 분	대상자 (명)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572	3.28±1.54		2.49±0.55		3.34±0.69		
성별	남	240	3.10±1.61	-2.29 <sup>†</sup>	2.41±0.56	-2.87 <sup>**</sup>	3.47±0.65	3.83 <sup>**</sup>
	여	332	3.40±1.47		2.54±0.53		3.23±0.70	
연령 (세)	20-29	203	3.17±1.54	0.49	2.48±0.53	2.35	3.10±0.71	16.96 <sup>**</sup>
	30-39	118	3.35±1.44		2.53±0.56		3.32±0.67	
	40-49	125	3.34±1.49		2.56±0.51		3.59±0.62	
	50≤	126	3.31±1.65		2.39±0.57		3.48±0.61	
학력	중졸이하	68	3.15±1.73	0.37	2.34±0.55	3.64 <sup>†</sup>	3.44±0.60	0.953
	고졸	341	3.27±1.53		2.48±0.53		3.32±0.71	
	전문대졸이상	163	3.34±1.48		2.55±0.57		3.34±0.67	
결혼상태	유	357	3.35±1.54	0.92	2.50±0.54	0.59	3.47±0.65	6.29 <sup>**</sup>
	무	215	3.20±1.53		2.47±0.55		3.11±0.70	
자녀수 (명)	없다	225	3.18±1.53	0.61	2.47±0.57	2.59	3.10±0.69	15.60 <sup>**</sup>
	1	46	3.43±1.33		2.53±0.54		3.39±0.62	
	2	221	3.35±1.50		2.54±0.49		3.49±0.64	
	3≤	69	3.25±1.73		2.35±0.60		3.55±0.66	
월평균 수입 (만원)	≤ 150	249	3.21±1.57	0.54	2.43±0.55	2.81	3.18±0.70	13.43 <sup>**</sup>
	151-250	170	3.29±1.49		2.50±0.53		3.41±0.68	
	251≤	153	3.37±1.53		2.56±0.55		3.52±0.62	
경제상태 (주관적)	상	16	3.50±1.21	0.18	2.67±0.63	3.14 <sup>†</sup>	3.72±0.74	4.92 <sup>**</sup>
	중	358	3.28±1.55		2.51±0.52		3.37±0.69	
	하	198	3.26±0.54		2.41±0.59		3.24±0.66	
직업	판매,생산직	219	3.30±1.58	0.18	2.50±0.54	3.07 <sup>†</sup>	3.40±0.66	2.96 <sup>†</sup>
	학생,군인,주부	201	3.30±1.54		2.49±0.52		3.22±0.71	
	교육자,공무원	27	3.30±1.54		2.71±0.50		3.30±0.70	
	기술전문직	95	3.24±1.46		2.50±0.56		3.50±0.64	
	무직	30	3.07±1.84		2.21±0.66		3.30±0.78	
	음주습관	전혀안함	146		3.40±1.60		0.66	
1달에1-3회	282	3.30±1.51	2.50±0.55	3.40±0.67				
주1회이상	144	3.20±1.50	2.50±0.56	3.30±0.72				
흡연량	전혀안함	418	3.40±1.50	4.30 <sup>†</sup>	2.52±0.54	2.86	3.30±0.70	2.16
	하루에한갑정도	117	2.91±1.64		2.39±0.53		3.44±0.66	
	하루에1갑초과	37	3.51±1.57		2.40±0.61		3.40±0.70	
	운동횟수	안한다	203		3.26±1.61		0.32	
1달에1-2회	139	3.36±1.42	2.49±0.50	3.36±0.65				
1주에1-3회	165	3.28±1.51	2.57±0.55	3.41±0.67				
매일	65	3.14±1.62	2.62±0.61	3.58±0.78				

<sup>†</sup> :  $p<0.05$ , <sup>\*\*</sup> :  $p<0.01$

천 점수가 좋았으며( $p<0.05$ ), 식생활행태(3.72)에서도 유의하게 높았다( $p<0.01$ ). 직업에서는 교육자와 공무원(2.71)이 구강보건실천에서 가장 높았으며( $p<0.05$ ), 식생활행태는 기술전문직(3.50)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음주습관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흡연량은 하루 한갑 이상(3.51) 피우는 자가 구강보건지식이 좋았다( $p<0.05$ ). 평소운동은 매일 하는 자가 구강보건실천(2.62), 식생활행태(3.58)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

### 3.5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 수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표 4)를 보면 자가 인식 구강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가 3.53(100점 기준 70.6점)으로 구강보건지식이 높았고( $p<0.05$ ) 구강보건실천은 건강한편(2.68)이 높았으며( $p<0.01$ ), 매우건강한 자(3.65)가 식생활행태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

보철치 유무에서 보철치를 가지고 있는 자가 구강보건지식(3.44)이 높았으며( $p<0.05$ ), 구강보건실천(2.61)도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

약관절 이상 유무 에서도 이상이 없는 자가 구강보건지식(3.36)이 높았으며( $p<0.05$ ), 식생활행태(3.40)도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 부모님 틀니장착유무에서는 틀니를 장착하고 있다(3.42)가 식생활행태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

## 4. 고찰

건강의 개념 변화에 따라 질병이 없는 상태의 협의의 개념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및 삶의 질이 포함된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체 건강의 일부인 구강보건도 배제 할 수 없는 요인이다. 최근 건강의 개념변화로 인하여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남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구강보건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구강건강을 증진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실시하였다.

[표 4]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 수준

구 분	대상자 (명)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572	3.28±1.54		2.49±0.55		3.34±0.69	
자가인식	매우나쁨	77	3.27±1.54	2.48±0.51		3.21±0.68	
구강건강 상태	나쁜편	231	3.45±1.48	2.47±0.52		3.34±0.65	
	보통	181	3.00±1.62	2.47±0.55	2.42'	3.27±0.69	3.93**
	건강한편	66	3.35±1.40	2.68±0.65		3.57±0.74	
	매우건강	17	3.53±1.66	2.19±0.45		3.65±0.77	
보철치	유	220	3.44±1.45	2.61±0.53	-2.03'	3.36±0.65	
	무	352	3.17±1.58	2.41±0.54		3.32±0.71	-0.59
결손치	유	236	3.27±1.53	2.51±0.57	0.12	3.35±0.65	
	무	336	3.28±1.54	2.47±0.53		3.33±0.71	-0.31
치아우식증	유	329	3.20±1.50	2.48±0.53	1.32	3.28±0.68	
	무	243	3.37±1.59	2.49±0.57		3.41±0.69	2.34'
치주질환	유	221	3.27±1.55	2.49±0.56	0.11	3.37±0.66	
	무	351	3.28±1.53	2.48±0.54		3.32±0.71	-0.92
약관절이상	유	115	3.00±1.68	2.52±0.59	2.33'	3.07±0.64	
	무	457	3.36±1.49	2.48±0.53		3.40±0.69	4.74***
부모님틀니 장착	유	236	3.38±1.43	2.51±0.55	-1.40	3.42±0.64	
	무	336	3.20±1.60	2.47±0.54		3.28±0.72	-2.40'

\* :  $p<0.05$ , \*\* :  $p<0.01$ , \*\*\* :  $p<0.001$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53%가 구강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응답척도의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뉴질랜드 성인의 10%미만이 구강건강이 불량하다고 평가하였고[7], 미국 성인의 12.1%가 구강건강이 불량하다고 한 연구결과[8]에 비해 매우 높았다. 김남희[9]는 노인에서 구강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예방보다는 치료위주의 치과진료를 시행하므로 치과처치를 받고 나더라도 완전한 회복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자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치아우식증은 57.5%가 있다고 응답하여 김미정[10]의 42.7%결과와 비슷하였다. 강명신[11]의 연구에서 임상적인 구강검진과 자가 평가 결과 치아우식증에서는 유의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치주질환에서는 38.6%만 있다고 응답하여 86%의 성인이 치주질환이 있다고 구강보건사업지원단[12]이 보고한 것과 상이하였으며, 강명신[11]의 자가 평가 보다 치과의사의 검진에 의한 치주치료 필요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같았다. 이는 치아우식증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치주질환은 구강보건교육을 받지 못하면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질환이 진행되다 조직이 파괴되어 결국 치아상실로 이어진다. 성인기의 치아상실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 치주질환은 광범위하게 진행되며 이미 상실된 치조골과 치주인대는 재생시킬 수 없으므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구강건강상태는 남자가 건강하였으며 나이가 들수록 보철치와 결손치, 치주질환이 유의하게 높게 나와 최원철[13]과 구강보건사업지원단[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여자가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실천이 유의하게 높아 이경애[14]와 배수명, 김진경[15]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식생활행태에서는 남자가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연령에서는 40~49세와 기혼자, 자녀수가 3명 이상, 월수입 251만원 이상, 주관적 경제상태가 '상' 인 자, 평소 운동을 매일하는 자가 식생활행태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평소운동을 매일하는 자는 구강보건실천도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

실천, 식생활행태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자들의 구강보건실천과 식생활 행태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구강보건지식의 점수는 고른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보철치가 있는 자가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실천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보철치아가 상실치로 인한 사회적 장애영역을 해소해주므로 보철물의 개수가 적을수록 전체적인 구강건강수준이 높다는 Allen 등[16]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었는데, 이는 보철치료를 받을 때 치과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음으로 보철치가 없는 자보다 점수가 높다고 생각되어진다. 악관절 이상이 없는 자가 구강보건지식과 식생활행태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 분석하고,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별 분포를 보면 여자가 58%, 연령은 20-29세가 35.5%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은 고졸이 59.6%이었고 기혼자는 64.4%이었다. 자녀는 '없다' 가 39.3%, 2명 이상이 38.6%였고, 월평균수입은 150만원이하가 43.5%였으며,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중' 인 자가 62.6%로 가장 높았다. 건강생활을 보면, 음주는 한 달에 1~3회 하는 자가 49.3%이었고, 흡연은 전혀 안하는 자가 73.1%였으며, 평소운동은 '안 한다' 가 35.5%이었고, '매일 한다' 가 11.4%이었다.
2. 주관적 구강상태는 '매우 나쁘다' 는 응답률이 40.4%로 가장 높았고 결손치는 41.3%가 있었으며 보철치는 61.5%가 없었다. 치아우식증은 57.5%가 있었고 치주질환자는 38.6%가 없었으며, 부모님이 틀니를 장착하였다는 자가 41.3%이었다.
3. 구강보건지식수준은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편이고, 보철치가 있으며, 악관절 이상이 없는 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구강보건 실천수준은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편에서, 보철치가 있는 자에서 각각 높았으며, 식생활 행태수준은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편

에서, 치아우식증이 없는 자에서, 악관절 이상이 없는 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차후 우리나라 성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연구대상자를 확률적 추출로 표본화하여 대규모 역학조사를 통하여 성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2007.

[2] Fehir, J. S, "Self-rated health status, self efficacy, motivation, and selected demographics as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on life style", Ph. D. dis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1988.

[3] Lin, B., and M. Linn, "Objective and self-assessed health in the old and very old", *Social Science Medicine* Vol. 14, pp. 311-315, 1980.

[4] Cockerham, W. C., K. Sharp, and J. A. Wilcox, "Ag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 *Journal of Gerontology* Vol. 38, No. 3, pp. 349-355, 1983.

[5] Hunt. S.M., J. McEwen, and S. P. McKenna, "Perceived health: Aged and sex comparisons in a communit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34, pp. 156-60, 1984.

[6] 문혁수, 김종배, "상대치과보건의료수 요와 치과보건의료수요 간의 양적관련도 추정법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3권, 제1호, pp. 15-25, 1978.

[7] Chen, M., and P. Hunter,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New Zealand:A social perspective". *Soc Sci. Med.* Vol. 43, pp. 1213-1222, 1996.

[8] Gift, H. C., K. A. Atchison, and T. F. Drury, "Perception of the natural dentition in the context of multiple variables". *J. Dent. Res.* Vol. 77, pp. 1529-1538, 1998.

[9] 김남희,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

대학원, 2003.

[10] 김미정,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구강보건행태, 주관적 증상 및 구강병 발생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11]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서울: 2006.

[12] 강명신. "구강보건인식, 태도, 행동 및 지식도가 치태 관련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4.

[13] 최원철. "수도권 일차구강진료수령자의 영구치아 발거원인 비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14] 이경애, "치과위생사의 구강위생의 지식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15] 배수명, 김진경, "성인의 구강보건지식 인지도에 따른 구강보건 행동수준". 혜전대학 논문집, 2006.

[16] Allen, P. F., A. S. McMilan, and D. Locker, "An assessment of sensitivity to change of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 in a clinical trial",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Vol. 29, pp. 175-82, 2001.

**저 자 소 개**

김 지 희( Jee Hee Kim)

[정회원]



- 1987. 2 : 고려대학교 의학과 (의 학사)
- 1989. 8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 학석사)
- 1993. 2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 학박사)

• 2006. 3 ~ 현재 :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의 · 생명공학

홍 민 희(Min-Hee Hong)

[정회원]



- 2006. 2 : 건국대학교 의생명공학 (이학사)
- 2011. 2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0. 3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외래교수

· 2010. 3 ~ 현재 : 포항대학 치위생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기초치의학, 보건교육학

정 미 애(Mi Ae Jeong)

[정회원]



- 1999. 8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석사)
- 2008. 2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1998. 3 - 2009. 2 동우대학 치위생학과 부교수

· 2010. 3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구강보건, 치과임상, 예방치과학, 장애구강관리학